

시연施連칼럼

가슴 저리도록 품고 싶은 연적硯滴



권오신
칼럼니스트, 은곡서원 위원장



가슴 저리도록 품고 싶은 연적(硯滴)이다. 청화나 진사 문양을 그려 넣지도 않고 그냥 우유 빛 흰웃을 입힌 연적이다.

복숭아 껍질을 따고 얇혀 놓은 것 같은 순백(純白)의 자태에 가녀린 줄기가 양각(陽刻)돼 있을 뿐이지만 18세기 말 조선(朝鮮) 사기(沙器)가 내리막길을 걸었을 즈음 경기도 분원에서 구워졌다.

우리나라 연적(硯滴)의 역사(歷史)는 의외로 길다.

벼루에 먹을 갈 때 쓰이는 연적은 수적(水滴) 또는 주적(注滴)이라고도 불린다. 고려(高麗) 이전부터 사용된 연적(硯滴)은 고려(高麗) 시대엔 주로 청자로 빚어진다. 모양이 세련되고 색이 은은해서 귀한 대접을 받았으며 조선(朝鮮)에 들어서는 청화백자(靑畫白磁)로 구워졌다. 모양새가 예술적(藝術的)이고 손아귀에 달라붙는 백자(白磁) 연적(硯滴)은 당시에 도 참 한 섬 값을 주어야 살 수 있었다.

가슴에 그냥 품고 싶은 이런 연적(硯滴)을 서안(書案)에다 두고 바라볼 수만 있다면 이제라도 한시인(漢詩人, 권영도權寧燾 1906~1991)처럼 붓을 잡고 싶어진다.

이 연적을 볼려고 글씨를 썼던 시인(海隱 海隱 韓性 寧燾)의 숨결이 내 불을 스치는 것 같다. 복숭아형 백자연적(白磁硯滴)은 절제된 아름다움과 단순함의 극치라고 할까.

조선(朝鮮) 선비의 마음을 훔쳤다는 표현이 더 맞을 것 같다. 양과결집을 벗겨내듯 생각의 미(美)란 것이 이런 것이구나 하고 감탄사(感歎詞)가 절로 나올만하다.

천도복숭아는 하늘 마음을 지닌 의미가 숨어있었다.

천도복숭아와 크기마저 닮은 몸체는 차가워서 여름이면 더 꼭 쥐었을 것 같다. 우린 지금 이런 아름다움과 품격을 다 알고 산다. 먹물은 사다 쓰면 되고 컴퓨터가 다 가져간 방엔 외제 가구가 주변을 포위하고 사는 사회다.

저게 우리의 얼굴인가 하고 물어보고 싶다. 신학문이 밀려들었던 시기까지 문방사우(文房四友)는 사대부(士大夫) 문인(文人)들의 필수품이었으며 붓 베투에 반드시 따르는 것이 연적(硯滴)이어서 선비들의 손끝에 노는 벗이 됐다.

고려(高麗)는 물론 조선(朝鮮)시대까지 연적(硯滴)은 대개가 두부 모양을 한 청화백자(靑畫白磁)형 사각 연적이 주류였으나 형태미를 완숙하게 노출 시킨 복숭아·다랑쉬·오리·기린·원숭이 같은 동물 모양도 만들어져 부자 선비들에게 팔

렸다.

국보 74호 청자오리 모양 연적은 연묘 모자를 씌우고 정병 주둥이로 물이 흘러나오게 되어 있고 그 얇은 자태의 생김새가 결자(傑作)가운데 결작(傑作)이다. 오리는 하늘 물, 물을 나르는 새여서 이승과 저승, 인간(人間)과 신(神)의 세계를 연결(連結)시키는 새로 여겨져 선사시대(先史時代) 때부터 솟대의 머리를 타고 귀한 대접을 받았으며 연적·술잔 등 여러 쓰임새에 등장한다.

조선(朝鮮) 후기 경기도 여주 분원에서 만들어진 순백 연적은 색깔이 있는 고려(高麗)나 조선(朝鮮) 전기 시대의 연적과는 그 맛이 완전 다르다. 권길조(權吉祚, 34세 좌윤공파佐尹公派) 고미술품(古美術品) 전문가에 따르면 "가공하거나 모양을 낸 흔적들을 최고로 아끼고 당대의 수작(秀作)이라"고 감정했다.

천도복숭아의 실제 크기를 닮아 쥐는 손맛이 더 일품이다. 껍질과 가녀린 줄기 잎사귀를 돌출시켜 한 손에 들어오고 붓꽃 솟은 꼭지를 글을 쓰다 지치거나 무로함엔 시달렸던 선비들이 손끝으로 매만져 은근히 예로되한 외출까지 했을 법하다.

풍류도(風流道)에 심취했을까. 아니다. 투명한 백색 복숭아 연적의 주인이었던 해은(海隱) 시인의 내면이 더 심오하고 풀먹인 묘시 적삼처럼 곳곳에 한 시대를 같이 했을 것 같다. 도공(陶工)은 조선(朝鮮) 선비들의 마음을 최대한 표현했을까 아니라 도공(陶工) 역시 안빈낙도(安貧樂道)를 즐기는 선비들의 삶을 알았던 것이 분명하다.

지금 생각하니 마음을 놓친 삶은 허깨비 인생을 사는 거나 다름없다. 우물쭈물하다가 세월(歲月)만 보내버렸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시인(詩人)의 벼루함에서 쓰다 남은 먹 향을 맡고 연적(硯滴)을 만지면서 정신을 차려 본다.

(자료출처資料出處 : 해은시집海隱詩集)

현조(賢祖) 문집 봉람(奉覽) <33>

각재집(覺齋集)



권갑현 편집위원장

<각재집>은 각재(覺齋) 권삼현(權參鉉, 1879-1965) 공의 시문집으로 석인본 9권 5책이다.

공은 안동권씨 시조 태사공 35세로 북야공파(僕射公派)이다. 자(字)는 경효(景孝), 호(號)가 각재이다. 경남 의령군 부림면 신반(新反) 출신으로 부친은 권재봉(權載鳳, 1854-1899)이며, 모친은 상주주씨(尙州周氏)로 주진열(周軫烈)의 따님이다.

공은 선조인 상암(霜峯) 권준(權濬, 1578-1642)의 지절(志節)을 물려받고, 어린 나이에 연재(淵齋) 송병선(宋秉璠, 1836-1905)의 문하에서 수학하여 울곡(栗谷) 이이(李珣, 1536-1584)와 우암(尤庵) 송시열(宋時烈, 1607-1689)의 학통을 계승하였다.

연재 송병선의 아우인 심석재(心石齋) 송병순(宋秉珣, 1839-1912)을 비롯하여 면암(勉菴) 최익현(崔益鉉, 1833-1906)·간재(良齋) 전주(田愚, 1841-1922)·삼외재(三畏齋) 권명희(權命熙, 1865-1923) 등과 교류하였다.

1905년에 을사늑약이 맺어지고 스승 송병선이 순국하자 그 원통함을 견디지 못해 경남 합천 대명면 창리(倉里)에서 족초(族祖)인 삼외재 권명희 등과 함께 스승 송병선의 문집을 편집·간행하는 일에 사서(司書)로 참여하였다. 1909년 심석재 송병순이 명(明)나라 신종(神宗)과 의종(毅宗)의 사당인 만동묘(萬東廟) 복원을 주장하자 그를 도와 이 일에 앞장섰다. 그러다 1912년 송병순마저 순국하자 초계(草溪) 봉산(鳳山)에 은거하며 강학하였다.

1916년 가족을 데리고 황매산(黃梅山) 깊은 골짜기에 들어가 숨어 지내다 1918년 부친상을 당하여 고향인 신반(新反)으로 돌아와 명석동(明石洞)에 정자를 짓고 은거하였다.

공은 스승 연재(淵齋)로부터 천인성명(天人性命)과 화이존양(華夷尊攘)의 학문을 이어받아 노사(蘆沙) 기정진(奇正鎭, 1798~1876) 학파와의 논쟁거리였던 이기설(理氣說)에 대해 울곡(栗谷)의 학설을 따라 주기(主氣)의 입장을 고수하였다.

제자로는 화은(華隱) 권평현(權平鉉, 1897-1969)·추연(秋淵) 권용현(權龍鉉, 1899-1987) 등이 있다.

공의 시문(詩文)은 1967년 족제(族弟) 주연 권용현·조카 삼은(森隱) 권영순(權永純, 1906-1981) 및 여러 문인에 의해 편집·간행되었는데, 서문과 발문은 없다.

권1에 시 375수, 부(賦) 1편, 권2~4에 서(書) 167편, 권5에 서(書) 21편, 잡저 21편, 권6에 서(序) 14편, 기 33편, 발 4편, 권7에 잡 6편, 명 9편, 자사 3편, 훈서(昏書) 3편, 상량문 5편, 축문 4편, 제문 42편, 애사 3편, 권8에 비(碑) 4편, 묘지명 7편, 묘표 24편, 권9에 묘갈명 27편, 행장 6편, 전(傳) 1편, 부록에 행장·묘갈명 각 1권이 수록되어 있다.

공의 글 중에서 잡저(雜著)의 <봉산정학규(鳳山亭學規)>와 <명석정절목(明石亭節目)>은 강학의 학칙(學則)으로서, 당시 전통적 교육 전반에 대해 비교적 소상히 소개하

고 있다. <서행일기(西行日記)>는 1909년에 심석재 송병순이 만동묘(萬東廟)의 복원을 주장하자 화양동(華陽洞)으로 찾아가 그 일을 상의하고, 구곡(九曲)을 두루 유람하며 기록한 일기이다. <동유기행(東遊紀行)>은 1945년 봄 금강산 및 강원도 일원의 경치 좋은 곳을 탐방하면서 쓴 기행문으로, 한국의 고지를 국토의 경치와 역사적인 유적을 통하여 달래고 있다.

다음은 공의 문집 제7권 잠(箴)에 실려 있는 <주옹만좌우사잡(周應萬座右四箴)> 중의 세 번째인 <봉선(奉先)>으로, 잠(箴)은 잠언(箴言)으로서 사람이 살아가는 데 훈계가 되는 짧은 말이고 봉선(奉先)은 조상의 제사(祭祀)를 받드는 일을 말한다.

人之爲道(인지위도)

사람이 행해야 할 도리 중에

莫大報本(막대보본)

조상은 해 깊은 게 가자 크다

本之或忘(본지혹망)

근본을 후시 잊어버리게 되면

枝從以償(지종이분)

가지가 이에 따라 넘어지리라

其道伊何(기도이허)

그렇다면 어떤 것이 무엇인가

必由於誠(필유어성)

반드시 정성에서 나와야 한다

誠之不至(성지부지)

정성이 지극하지 아니한다면

禮爲虛名(예위허명)

의례는 헛된 이름이 된다네

祖考精神(조고정신)

조상의 마음이 어디에 있나

便在自家(변재자가)

바로 자기 자신에게 있다네

聚誠以求(취성이구)

정성을 모아 신을 찾는다면

神豈在邇(신기재하)

신께서 저 먼 곳에 계시겠나

儼然肅然(에연숙연)

아련히 빛은 듯 경건히 하고

必致如在(필치여제)

살아계시는 듯 정성을 다하라

無誠無神(무성무신)

정성이 없으면 귀신도 없으니

豈敢或怠(기감혹태)

어찌 감히 후시 태만하리라

앞으로 설날이 얼마 남지 않아 각재(覺齋) 공의 이 글이 지금의 우리에게도 참고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골라서 번역해 보았다.

만남 사람들

라오스의 족친들! 싸바이디(안녕)! 켓짜이(고맙습니다)!

권정순(權政淳, 추밀공파, 35세), 권혁상(權赫相, 북야공파, 36세) 이야기



權은 황화목이다. 이 꽃이 날린 라오스, 그리고 이맘 농원의 장엄한 노을.



한국 취업과 한류에 대한 관심이 많다. 언어습득은 역시 어린이가 빠르다.

세계로 뻗어가는 한류 바람과 함께 경북 영주시 품기읍 소재, (주)이팜 관련 제품의 원료(K-collagen)인 금화규(golden hibiscus) 농장 설립과 동남아의 중심인 라오스에서 판매망 확보를 위한 시장조사자 가서 유연히 농장에 한인들이 몇 사람 초대되어 현지인들과 모임을 가지게 되었다.

6명 중 3명이 권씨라 모두들 놀랐다. 본 기자(이팜 CMO 권오철權五澈, 부정공파 35세)와 70대 후반의 권정순(權政淳, 추밀공파, 35세) 선생, 그리고 50대 중반의 권혁상(權赫相, 북야공파, 36세) 선생과 이야기를 나누고 마침 가져간 홍보 1월호를 나눠 주고 권문의 이야기를 하면서 '라오스 종친회'를 하자고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권정순 종친은 미국 시민권자로 40년 살다가 경남 하동에 정착하여 5년 정도 모친을 모시다가 작년 97세로 떠나보내고 지금은 전 세계 오지(아프리카, 동남아, 인도)의 마을을 다니며 의료봉사(미국 침구사 자격)를 하면서 다니고 있다고 한다.

또 피아노(연주, 조율), 테니스, 사냥 등에도 조예가 있어 피아노도 고쳐주고 연주도 한다고 한다. 여기서서는 소수민족 몽족에게 피아노와 노래를 가르치

고 있다.

그는 '이렇게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실천하니 나를 건강하지만, 그래도 어느덧 80이니 힘들지요. 그러나 아직은 몇 년 더 가능할 것 같아요. 오늘 정보도 보고권씨 이야기도 들으니 새삼스럽고 뿌리(root)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고, 이따 아들 딸과 통화할 때 재미있는 이야기 꺼리가 되었고요. 고향은 원주민에 어릴 때 부모를 본적이 있고 이름은 족보랑은 달라요.' 권정순 선생과 이야기는 끝이 없다. 우간다에서 잠깐 이야기 등은 매우 흥미진진했다. 비록 낯선 땅을 떠돈다지만 항상 봉사하는 마음이고 자가 건강관리도 잘하고 대단한 분이다.

또 권혁상 종친은 강릉 출신으로 14년째 라오스에 거주하면서 여러 분야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고 상당히 현지화가 되었다고 한다. 그래서 요즘은 취업차 한국으로 가려는 라오스인들을 위한 무료 '한글강좌'를 하고 있다고 한다.

비록 작은 집에서 힘들게 생활하지만 나름 종교적 믿음의 실천과 봉사로 기쁨 속에 살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연로한 부모님과 떨어져 있음은 못내 안타까운 일이고 코로나로 오랜만에 보니 많이 늙은 신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프다고 했다. 그는 '라오스는 최빈국이고 아까 주유소에 긴 줄이 선 것을 보셨듯이 매우 어려운 여건입니다. 중국의 20년 전과 비슷하지만, 앞으로도 경제적 발전은 기대하기 힘든 여건입니다. 그러나 루앙프라방에서 보셨듯이 서양인이 매우 많이 찾고 그 이유는 역

시 여유와 인정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60년대처럼 아직 남은 자연과 인간미 같은 것이 많이 남아 있지요. 눈이 마주치면 수줍게 웃고 '싸바이디(인사)'하는 그 모습은 옛날 잊어버린 시골 아주머니나 누이의 미소를 떠올리게 하네요! 보편냥(괘뿔야요) 하는 말은 일견 체면화면 모습 같지만 또 세상을 달관한 듯한 소박한 심성을 뜻하기도 해요. 하여간 오늘 라오스 권씨 종친회라 생소하지만 반갑고요. 현지 교민은 1000명 정도라 생각되고 권씨라고 만난 분은 너댓명 기억나고요. 요즘 '한 달 살기'로 많이 오시니 후 종친분들 중에 오시면 직접 만나뵙기는 그렇지만 안내는 해 드리지요. 한인연합교회(070-7760-1311)나 이팜 농장(070-4177-5056)으로 연락주시면 되었요.' 라고 하면서 라오스어 강의를 이어갔다.

하여간 라오스는 떠오르는 은퇴자들의 아젠다이다. 아직 남은 그 옛날의 시골풍경과 인심은 우리를 편하게 하고 또 저렴한 물가는 부담이 적다. 다만 시내의 공해와 교통문제가 좀 그렇긴 해도 한국의 겨울 기간이 건기로 가을 날씨 정도도 맑고 좋다. 음식도 한국인에게 상당히 입맛에 맞는다.

조바심 내지 않고 조용히 사색하는 몇 달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최근 물가가 상승했지만 달러가 두 배 상승, 국수 한 그릇에 2000원 정도면 되고, 임금은 20만 내외이다. 그러나 공산품은 거의 한국과 값이 같고 한국 식품은 동일한 것이 한국 수퍼랑 거의 같다. 저렴한 항공권은 동방항공 경유하는 것이 싸다.

글 권오철 기자



노년을 봉사와 섬김으로 보내고 그것이 건강의 비결. 경남 하동족친들의 관심을 바란다.